

## 전략적 여성혐오 서사의 등장과 그 의미 — 웹툰 〈뷰티풀 군바리〉를 중심으로

구자준\*

1. 들어가며
2. 청년세대의 서사와 '여성혐오'
  - 2-1. 청년세대 담론과 웹툰
  - 2-2. 일베의 내러티브
3. <뷰티풀 군바리> 이전의 군대웹툰: <노병가>와 <낙오여군복귀기>
4. <뷰티풀 군바리>의 서사와 여성 묘사
5. 나가며

### 국문요약

2015년 2월 15일부터 네이버에서 정식 연재되고 있는 웹툰 〈뷰티풀 군바리〉는 작품의 여성혐오로 인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작품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에 대한 무수한 반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웹툰이 현재까지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즉 〈뷰티풀 군바리〉의 이러한 인기는 단지 일베와 같이 혐오담론을 꾸준히 생산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역차별'에 민감한 청년세대 남성 웹툰 독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형성된 것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뷰티풀 군바리〉와 같이 역차별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을 건드리는 '공세적'인 여성혐오 서사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과

---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그 의미를 웹과 웹툰의 청년세대 서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규명하고자 시도했다.

『88만원 세대』의 출간은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시선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자기 인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러한 세대의 새로운 자기 서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기술한 미디어가 바로 웹툰이다. 웹툰은 기성 미디어에서 외면하던 캠퍼스 드라마와 같은 청년 세대의 일상을 묘사하는 장르를 제시하면서, 고통을 겪는 청년세대의 연대의식과 ‘무임승차자’에 대한 분노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때 일베는 전라도·좌파·여성이라는 ‘무임승차자’를 상상적으로 제시하면서 청년세대의 서사를 극우적으로 전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에 대한 혐오는 현재의 성별 구도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전략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베가 벌이고 있는 문제적 실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뷰티풀 군바리〉는 이러한 전략적 여성혐오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작품은 남성 청년의 몫을 빼앗는 자로 여성을 지목하며, 올바른 여성상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교정 전략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안84의 웹툰 〈노병가〉와 같은 유사한 서사가 보여준 뾰족한 묘사와 군생활에 대한 분노를 바탕으로 하되, 군인의 성별을 전환하여 제시하면서 여성에 대한 분노와 상상적 처벌을 극대화한 것이다.

일베의 여성혐오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것이었듯이, 〈뷰티풀 군바리〉 역시 청년세대에게 익숙한 문법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공론장에서는 차마 얘기되지 못했던 것, 즉 ‘무임승차자’ 여성을 처벌하고 교정하는 서사를 네이버와 같은 메이저 플랫폼에서 펼쳐내는 데 성공한다. 물론 〈뷰티풀 군바리〉의 서사 내에서 ‘무임승차자’가 누군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는 성별을 전환시킨 설정 자체가 여성이 무임승차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여성 징병제, 웹툰, 의경 서사, 일베, 전략적 여성혐오)

## 1. 들어가며

〈뷰티풀 군바리〉는 2015년 2월 15일부터 네이버에서 정식 연재되고 있는 웹툰으로, 1990년 이후 여성 징병제가 도입된 가상의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예고편의 문구는 웹툰의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하게 ‘나라를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sup>1)</sup> 실제 작품의 서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입대한 여성들이 군대에서 경험하는 ‘폭력’이다. 2006년 입대한 정수아는 의경 부대 내의 갖은 악습과 강도 높은 폭력을 경험하며 ‘개념’을 갖춘 군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성이 징병된다는 설정과 더불어 1화의 군필자 가산점 폐지 토론에 대한 악의적인 패러디<sup>2)</sup> 등은 연재 초기 작품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

1) 예고편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전하다/대한민국 ‘남녀’ 모두가 자신의 이십대 오분의 일을 바쳐 나라를 지키거나 나라에 봉사를 하고 있다/남녀 모두가 똑같이 군대를 가고/그 곳에서 여자도 똑같이 웃고 울며 군 생활을 하고 있다./본격!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군대가는 그런 만화!”(강조는 원작자)

2) 1999년경 군필자 가산점제 폐지 문제를 둘러싼 공중파 토론 프로그램에서, 가산점 유지를 주장하는 남성 패널의 발언에 대해 한 여성 페미니스트가 “그래서요? 깔깔깔”이라고 답하며 비웃었다는 루머에 대한 패러디를 의미한다. 그동안 이러한 루머는 사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인터넷에서 널리 확산되어 페미니스트를 조롱하고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뷰티풀 군바리〉에서는 여성 군 입대 문제를 둘러싼 토론에서 남성 패널들이 “그래서요? 깔깔깔”이라고 말하며 여성 패널들을 비웃는 장면으로 패러디되었다. 또한 윤보라는 인터넷에서 회자되던 ‘망언록’의 출처 역시 실제 TV 토론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 시리즈 『뉴트럴 3』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윤보라, 『일베와 여성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제57호, 2013, 42-44쪽.

러일으켰다. 특히 31화에서 주인공 정수아가 선임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의 묘사는 피학적 쾌락을 강조하는 포르노의 특정한 코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sup>3)</sup> 웹툰의 여성혐오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연재 중지를 청원했으며, 언론 역시 작품의 선정성과 혐오 정서를 계속해서 문제 삼았다.

설령 문제가 된 구타 장면이 이른바 ‘아해가오’로 불리는 포르노의 코드를 참조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품은 폭력보다 폭력을 겪는 여성의 신체를 선정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포르노의 논리를 따른다. 위근우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문제삼은 바와 같이, 구타의 순간 강조되는 것은 정수아의 출렁이는 가슴이다. 그리고 정수아가 바닥에 쓰러진 다음에는 로우 앵글로 정수아의 엉덩이와 짓눌린 가슴이 부각된다. 작품에 대해 “코스튬 플레이를 더한 가학적 포르노”라는 비판이 행해지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sup>4)</sup>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티풀 군바리>가 여전히 네이버에 연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을 군대로 보내 학대하는 서사가 단지 포르노그래피로 소비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관람가로, 메이저 플랫폼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물론 이는 무엇보다

3) “해당 장면을 비판하는 이들은 ‘배뺱’이 일본의 성인 대상 작품에서 가학적인 성 묘사를 나타내는 장면 중 하나이며, 또한 해당 장면을 그리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눈을 잃어 눈이 풀리고 눈물과 침을 줄줄 흘리는 묘사 역시 속칭 ‘아해가오(アヘ顔, 입을 ‘야’하고 벌리고 혀를 ‘해’하고 벌린 얼굴이라는 뜻으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얼굴을 뜻하는 일본의 은어)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명백하게 성적 대상화가 담겨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성상민, 『‘뷰티풀 군바리’ 논란, 작품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미디어스』, 2015.9.25.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93>(검색일: 2017.7.10)

4) 위근우, 『뷰티풀 군바리, 이토록 어글리한 만화』, 웹진 『IZE』, 2015.10.19. <http://ize.co.kr/articleView.html?no=2015101811457262381>(검색일: 2017.7.10)

도 여성혐오 정서가 한국 대중문화에 만연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엄격한 단죄가 이루어져 온 ‘남성비하’ 발언과 달리, 여성혐오 발화는 공공연히 수행되며 또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능인 장동민을 둘러싼 논란이 전개된 과정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장동민은 동료연예인 유세윤, 유상무와 함께 진행하던 팟캐스트 “옹달샘의 꿈꾸는 라디오”에서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과 비하 발언을 거듭하였으며,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sup>5)</sup> 그러나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장동민은 방송 출연을 강행하였는데, 이는 동료 연예인 및 방송계 PD들의 적극적인 옹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sup>6)</sup> 남성 연예인은 상당한 수위의 욕설과 여성혐오 발언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다는 이유로 남성 연대의 전폭적인 옹호를 받으며 방송 출연이 용인되고 있는

5) 개그팀 ‘옹달샘’의 멤버인 장동민, 유세윤, 유상무는 자신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나는) 처녀가 아닌 여자를 참을 수 없다”, “섹스할 때 상대방이 처녀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한다”와 같은 ‘농담’을 주고 받았으며, 이후 이와 같은 발언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했지만 진행 중이던 방송에서 하차하지는 않았다. 남지우, 『방송계의 ‘남성연대’는 어떻게 ‘여성혐오’를 조장했나』, 『오마이뉴스』, 2017.6.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319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3192) (검색일: 2017.7.10)

6) 손희정은 장동민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과 방송계의 옹호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장동민전(戰)이라 명명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전투는 ‘장동민전(戰)’이다. ‘장동민전’을 겪으면서 우리는 대중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과 연예 권력의 강력한 남성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들이 메갈리아와 사회적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과 같이 그들 역시 ‘상품’이자 ‘동료’인 남성 연예인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워나가려 했다. 장동민의 소속사는 연예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를 브라운관에 상주시켰고, 장동민-유세윤-유상무로 구성된 개그팀 ‘옹달샘’은 남자들 간의 눈물 나는 우정과 그 가치를 강조했으며, 이제 장동민은 가수 나비와의 공개(이성애) 연애를 통해 ‘현명한 여자를 만나 비로소 남자가 되어간다’라는 소년-성장-서사를 짜고 있다.” 손희정, 『젠더戰과 퓨리오-숙들의 탄생: 2016년, 파퓰러 페미니즘에 대한 소고』, 『여/성이론』 제34호, 2016, 36쪽.

것이다.

그러나 일상화된 여성혐오만으로 웹툰이 인기를 얻은 동학과 의미를 정교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장동민에 대한 다소 방어적인 옹호와 달리, 〈뷰티풀 군바리〉에 대한 상당 수 남성 네티즌의 지지는 보다 적극적인 공감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감은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며,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 인해 청년 남성의 삶은 더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의무’에는 변화가 없다는 불만에서 출발한다. 이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가 남성들의 군 복무와 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부재이다. 이들은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만이 징병 대상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젊은’ 남성들은 오히려 역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코미디언 장동민에 대한 비판의 핵심에는 웅달샘의 발언이 있는데, 장동민을 옹호하는 이들도 웅달샘의 발언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발언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잘못에 비해 벌이 과하다거나 웅달샘의 멤버들이 사실 좋은 사람들이며 충분히 반성했다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sup>7)</sup> 반면 〈뷰티풀 군바리〉의 서사는 많은 이들에게 ‘역차별’에 대한 담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노골적인 ‘여성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내는 네티즌까지 독자로 포섭한다.<sup>8)</sup> 웹툰의 여성혐오가 청

7) 장동민이 출연하던 한 예능 방송의 피디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동민을 옹호하다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게시물에서 장동민의 잘못과 인성은 자연스럽게 분리된다. “굳이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녀석은 입이 거칠고 과장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재밌다고 해주니 조금씩 더 나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녀석은 착하고 진실하다. 그래서 주변에서 녀석을 챙기고 친구 선후배 피디들이 녀석을 좋아한다.”, 박수진, 『코미디 빅리그 김석현 피디, 장동민 옹호글 삭제하다』, 『허핑턴 포스트』, 2015.4.14, [http://www.huffingtonpost.kr/2015/04/14/story\\_n\\_7059952.html](http://www.huffingtonpost.kr/2015/04/14/story_n_7059952.html) (검색일: 2017.7.10)

년세대-남성-리버럴의 정치성과 경합하지 않는 수위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뷰티풀 군바리〉의 등장을 물밑의 ‘모에 코드’가 광장에 드러난 것으로 바라보는 박인하의 분석은 이런 지점을 겨냥한다. 비록 박인하의 칼럼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다양한 모에 캐릭터’로 한정짓는 데 그치고 있으나, 〈뷰티풀 군바리〉에서 청년세대 남성 네티즌의 코드에 부합하는 요소들이 공공연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지적에는 타당성이 있다.<sup>9)</sup> 〈뷰티풀 군바리〉는 그동안 웹툰의 독자들이 선뜻 드러내지 못하던 여성혐오적 정서를, 남성-청년세대에게 익숙한 장르의 문법을 통해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서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군인에 대한 상상이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뷰티풀 군바리〉는 MBC에서 방영한 병영 체험 예능 〈진짜 사나이-여군 특집〉과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진짜 사나이〉는 ‘여군 특집’을 이벤트 형식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8) 예컨대 남성 유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브컬처 위키피디아 사이트인 나무위키(namu.wiki)에서는 “뷰티풀 군바리/논란” 항목에서 만화의 인기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군대를 갔다온 남성독자들이 이 만화를 보면서 느끼는 재미는, 입대 전에는 그렇게 순하던 여성 정수아가 입대 후에는 저도 모르게 입에서 ‘씨발’소리가 나오는 과정에 있다. 그만큼 많은 남성들이 공감 되는 만화다. 남성들은 자신들만 2년을 군대에 바치는 현실을 직접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불공평함을 느끼지만 여성들은 군대에 가지 않기 때문에 남성이 느끼는 박탈감은 상당하다.” 또한 해당 항목에서는 작품이 비판받을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만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작가의 자유”이며, “전체관람가 붙은 만큼의 수위는 지키는데다가 내용 면에서 크게 문제될 일이 없”음이 역설되고 있다. <https://namu.wiki/w/%EB%B7%B0%ED%8B%B0%ED%92%80%20%EA%B5%B0%EB%B0%94%EB%A6%AC/%EB%85%BC%EB%9E%80#s-2> (검색일: 2017.7.10)

9) 박인하, 『[만화로 본 세상(뷰티풀 군바리)-경계를 넘어 광장으로 나온 ‘모에 코드’], 『주간경향』, 2015.10.13,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510051717101&code=116> (검색일: 2017.7.10)

군대, 그리고 여성 군인을 바라보는 모순적인 시선이 계속해서 교차하여 나타난다. 군대는 여성들도 ‘자기 계발’의 일환으로 입대를 고려할 만한 공간으로 그려져야 하지만, 동시에 여성 군인의 입대는 그동안 병역의 임무에 무관심했던 여성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여성 군인은 군대에서 남성성을 획득하기를 요구받으면서 ‘여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조롱의 대상이 되지만, 군대에서 지나치게 잘 적응한 여성은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된다.<sup>10)</sup>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TV의 여성 군인 재현과 <뷰티풀 군바리>의 여성 군인 재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짜 사나이-여군 특집>이 훈련 장면을 통해 군대의 남성성을 가능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뷰티풀 군바리>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 주력한다. 폭력과 욕설, 각종 가혹행위에 대한 재현이 주는 사실적인 느낌은 웹툰에 대한 몰입과 흥미를 강화시킨다. 작품의 묘사에 공감을 표하는 ‘베스트 댓글’들 역시 군대의 부조리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이 작품의 주요한 인기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군대 웹툰의 성공에 있어서는 군대 예능의 성공과는 다른 논리도 작용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뷰티풀 군바리>의 서사가 온라인에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뷰티풀 군바리>와 같이 역차별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을 건드리는 ‘공세적’인 여성혐오 서사가 탄생하고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웹툰에서 청년세대 서사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일베와

10) 조서연, 『‘진짜 사나이’와 ‘여자 군인’,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화된 군사주의-MBC 예능 <진짜 사나이-여군 특집>에 대하여』, 『문화/과학』 제83호, 2015, 122-141쪽.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청년세대 서사를 수용·변형한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노병가〉나 〈낙오여군복귀기〉와 같이 〈뷰티풀 군바리〉와 주제나 소재의 측면에서 밀접한 웹툰들을 살펴 본 다음, 최종적으로 〈뷰티풀 군바리〉가 청년세대 서사와 군대 웹툰을 어떻게 수용/변형하는 과정에서 여성혐오는 어떻게 조율되어 표출되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2. 청년세대의 서사와 ‘여성혐오’

### 2-1. 청년세대 담론과 웹툰

2007년 출간된 『88만원 세대』는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시선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자기 인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취업난과 스펙에 대한 강요는 세대 전체가 강요받고 있는 부당한 현실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청년세대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스스로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새로운 자기 서사가 적극적으로 기술된 미디어가 바로 웹툰이다.

『88만원 세대』이후에도 오랜 시간동안 대부분의 TV드라마가 청년의 모습을 기존 드라마의 문법에 따라 평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쳤던 반면, 〈당신과 당신의 도서관〉, 〈목욕의 신〉, 〈무한동력〉, 그리고 〈미생〉과 같은 웹툰은 청년세대가 겪는 다양한 삶의 현실들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11)</sup> 특히 고졸 인턴직원의 어려움을 다룬 웹툰 〈미생〉은 그동안

11)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이승연, 『웹툰이 재현하는 청년세대와 청년문제에 관한 연구: 웹툰 〈당신과 당신의 도서관〉, 〈목욕의 신〉, 〈무한동력〉, 〈미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던 청년세대가 마주한 현실을 보여주며 사회적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캠퍼스에 관한 서사들이 유독 웹툰에서만 환영받았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학교 조별 과제, ‘아싸’,<sup>12)</sup> ‘지잡대’<sup>13)</sup>에 관한 논란은 온라인에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나, 기성 미디어에서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다루어지는 대신 ‘단자화’된 청년세대의 모습만 조명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변화한 대학사회,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온라인의 논의를 반영한 것은 〈치즈 인 더 트랩〉이나 〈오늘의 낭만부〉, 〈멀리서 보면 푸른 봄〉과 같은 웹툰이었다.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캠퍼스에 대한 관심을 거두었던 TV나 영화는, 웹툰 속 캠퍼스 드라마가 성공한 다음에야 뒤늦게 OSMU 등의 형식으로 캠퍼스를 조명하기 시작했다.<sup>14)</sup>

기안84가 그린 일련의 웹툰들은, 자신의 체험에 기반한 청년세대 고백들이 어떻게 일련의 서사로 구성되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의 웹툰은 자전적 경험담을 바탕으로 소년이 2000년대의 현실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독자들 역시 같은 세대의 작가가 들려주는 ‘청년세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소년은 수능을 경험하며 좌절하고(〈패션왕〉), 입시가 끝난 후 ‘지잡대’로 진학하여 ‘아싸’의 서러움을 토로하거나(〈기안84 단편선: 다크템플러〉)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며(〈패션왕〉), 군대에 다녀와(〈노병가〉) 복학한 다음 다시 지방대에 대한 사회적 차별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기에 이른다(〈복학왕〉).

즉 웹툰 속 청년세대 서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청년세대

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2) 아웃사이더의 줄임말로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인터넷 은어.

13) 지방사립대를 비하하는 인터넷 은어.

14) 구자준, 『웹툰의 대학사회 재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3-38쪽.

담론, 그리고 청년세대 담론을 바탕으로 웹에서 형성된 ‘인터넷-서브컬처 코드’<sup>15)</sup>를 상당 부분 반영한다. 그 결과 ‘잉여’<sup>16)</sup> ‘조별 과제’, ‘지잡대’와 같은 코드들이 가장 먼저 웹툰에 도입되며, 웹툰은 다시 이러한 코드를 바탕으로 청년세대에 대한 웹의 담론을 중개·재생산한다.<sup>17)</sup> 이를 통해 ‘뽕진’하게 묘사되는 것은 청년세대가 현실에서 강요받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고통이다. 웹툰 속 인물들은 입시, 조별과제, 취업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계속되는 경쟁과 갈등에 시달리지만 ‘안정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며, 서사 속의 인물들이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나 서사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에서는 고통을 공유하는 세대의 연대의식이 묻어난다.

물론 웹툰에서 청년세대의 연대의식만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통 받는 이들 간의 연대가 강화될수록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무임승차자’에 대한 분노는 극대화되는데, 이러한 측면이 특히 강조되는 게 대학교의 조별과제에 관한 서사이다. 조별과제에 대한 서사는 결국 무임승차자를 어떤 방식으로 처벌하면서 자신의 ‘뭉’을 지켜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15)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서브컬처 코드’란 일종의 유사-사회라 할 수 있는 웹 공간 내부를 현실 공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순환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와 유행, 여론과 화제거리 등이 다뤄지는 특정한 방식을 통칭해 가리키는 말이다.” 김수환, 『웹툰에 나타난 세대의 감성구조: 잉여에서 병맛까지』, 『탈경계인문학』 제4권 제2호, 2011, 113쪽. 이 원고에서도 이러한 정의를 따라, 인터넷에서 생산/소비되는 청년/대학에 관한 세대론적 코드 및 병맛 코드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인터넷-서브컬처 코드’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16)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지칭하는 자학적 의미를 담은 인터넷 은어.

17) 구자준, 『웹툰의 대학사회 재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2-38쪽. 또한 최근에는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보다 극적으로 강조하는 ‘헬조선’이나 계급 상승의 여지가 차단되어가는 현실을 비꼬는 ‘흙수저’와 코드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웹툰 〈치즈 인 더 트랩〉에서 주인공 홍설은 여러 차례 조장을 맡아 조별 과제를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력’을 발휘하여 무임승차자를 처벌하고 자신의 몫을 지키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담당 교수는 홍설의 상황을 방관하고 자신의 원칙만을 따질 뿐이기에, 홍설은 오롯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sup>18)</sup>

이때 자신의 몫을 빼앗는 무임승차자가 누구인가에는 다소 유동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상황에 따라 누구도 ‘무임승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별과제 무임승차자의 유형으로는 술만 좋아하는 복학생이나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취업준비생, 애교가 많은 여자 후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스테레오타입이 제시되는데,<sup>19)</sup>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은 주변의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청년세대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나이와 성별, 학력에 대한 다양한 편견을 내재하고 있던 청년세대 서사는 언제든 극우적으로 전유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청년세대 서사의 대중화와 함께(거의 동시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촛불시위를 기점으로 온라인에서 정치적 성향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청년세대 서사의 ‘극우적 버전’도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커뮤니티가 바로 일베(ilbe.com)이다.

18) 구자준, 『캠퍼스 인 더 트랩-조별과제는 어떻게 고통이 되었는가』, 최서운 외, 『흠흠 청춘』, 세창미디어, 2016, 123-153쪽.

19) 나무위키의 ‘조별과제’ 항목에는 네티즌들이 정리한 다양한 무임승차자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은 주로 행동 양식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나, 성별/학년/나이/계급에 따라서도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s://namu.wiki/w/%EC%A1%B0%EB%B3%84%EA%B3%BC%EC%A0%9C> (검색일: 2017.7.10)

## 2-2. 일베의 내러티브

진보세력의 ‘이중성’과 ‘무능’에 대한 불신과 냉소로 일베에 뭉친 이들은 “한국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믿어지는 내재적 타자”를 향해 혐오를 분출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청년들의 몫을 빼앗는 자로 호명되는 것은 전라도, 좌파, 그리고 여성이다.<sup>20)</sup>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다양한 방식의 편견들이 결합하여, 이들을 공통의 적으로 상정하는 청년세대의 서사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김학준은 이처럼 전라도, 좌파, 여성을 타자화하는 기저에서 일베 유저들의 ‘평범 내러티브’를 읽어낸다. 그에 따르면 ‘평범 내러티브’는 한국 사회의 감정장<sup>21)</sup>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메커니즘으로, 감정에 대한 담론들을 바탕으로 삶의 과정을 고통을 통해 읽어낸다는 점에서 미국의 고통 내러티브와도 유사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통 내러티브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정과 승인을 내포하는 반면, 한국사회의 평범 내러티브는 ‘누구나 그러한 고통쯤은 경험해봤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의 고통을 거부한다. 고통은 한국사회의 성원 모두가 감수해야 하는 ‘평범한 것으로 격하되는 것이다.’<sup>22)</sup> 이때 전라도·종북·여성 자신의 고통을

20) 김학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62쪽.

21) 에바 일루즈에 따르면 감정장은 “사회생활의 한 영역, 곧 국가, 학계 각종 문화산업, 국가와 대학이 인가한 전문가 집단, 대규모의 의약 및 대중문화 시장 등이 이리저리 교차함으로써 창출되는 모종의 작용-담론영역”을 가리킨다. 이러한 감정장은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일종의 자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감정장에서는 “감정건강의 영역이 상품화”되고 “감정건강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능력에 대한 접근권이 규제”되며 그 결과 “정신건강과 감정건강이 일차산품으로 유통”되기에 이른다. 에바 일루즈, 『감정 자본주의』, 김경아 옮김, 들베개, 2010, 125-126쪽.

22) 김학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서울

특권화하거나, 고통받기를 회피하며 무임승차하려는 이들, 혹은 힘들게 성취해야 할 것으로 상정되는 '평범'을 방해하는 이들로 상정된다.

물론 이러한 '평범 내러티브'가 일베를 통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평범 내러티브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일반화된,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과도한 자기계발의 압력에 놓인 청년세대 일반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자기 서사에 가까우며, 청년세대나 대학을 다루는 웹툰 역시 이러한 세대의 자기 인식을 서사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범 내러티브'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평범 내러티브'가 일반화된 현상은 급격한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기존의 '평범한 삶' 자체가 무수한 노력을 통해 간신히 획득할 수 있는 '유토피아와 같이 여겨지고 있음을 드러낸다.'<sup>23)</sup>

그런 점에서 일베의 정서와 한국사회 전반의 감정 구조를 매끄럽게 분리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청년세대의 자기 서사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 가능성이 전라도·좌파·여성이라는 '무임승차자'를 상상적으로 제시한 일베에 의해 극대화된 것에 가까워 보인다.

다만 이때 전라도나 좌파에 대한 혐오를 여성혐오와 같은 궤에 올려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김학준 스스로도 언급하고 있듯이, '김치녀'에 대한 분노는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남성 네티즌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sup>24)</sup> 이에 관해 윤보라는 여성혐오가 "현재 일베가 벌이고 있는 문제적 실천의 기초를 이룬다"고 지적한다. 일베의 여성혐오는 '여성가족부-유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8, 132, 135, 136쪽.

23) 김학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36쪽.

24) 김학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69-70쪽.

명 페미니스트-한국여성 일반이라는 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확산되는 온라인 전반의 여성혐오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김치녀’와 같은 혐오발화를 만들어낸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전라도나 좌파에 대한 혐오단어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sup>25)</sup>

나아가 엄진은 일베의 여성혐오에는 현재의 성별 구도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기획과 전략이 작동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부담을 지면서도 성적으로는 남성에게 종속된 - 여성상이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분석한다. 일베의 유저들이 ‘김치녀’나 ‘보슬아치’ 등의 혐오 단어를 생산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담은 만화를 그리는 한편, 여성혐오 담론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일베 바깥에서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는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기획과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sup>26)</sup> 이런 점에서 일베의 여성혐오는 온라인 전반의 여성혐오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략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엄진이 언급한 ‘전략적 여성혐오’는 일베라는 커뮤니티의 독특한 성향을 규정하는 동시에, 일베가 일베 바깥과 공유할 수 있는 정서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2001년 부산대학교 여성주의 웹진이 사이버 테러를 당한 이른바 『월장』사건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베의 탄생 이전부터 온라인에서 여성혐오는 만연해 있었기에,<sup>27)</sup> 다른 혐오담론에 비해 일베의 여성혐오는 상대적으로 수위와 전략에 따라 일베 바깥의 호응을 손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일베

25) 윤보라, 『일베와 여성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제 57호, 2013, 35, 39쪽.

26) 엄진,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게시물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5, 24, 25, 119쪽.

27) 윤보라, 『온라인 페미니즘』, 『여/성이론』 제30호, 2014, 176-178쪽.

의 여성혐오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던 온라인의 여성혐오에 보다 구체적인 서사와 전략을 제공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이러한 일베의 전략적 여성혐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대중적 서사로 제시한 작품이 바로 <뷰티풀 군바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혹은 작가와 일베 커뮤니티의 직접적 연관성을 언급할 수는 없으나 <뷰티풀 군바리> 역시 일베와 동일한 전략을 바탕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웹툰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도 상당 부분 이 지점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물론 <뷰티풀 군바리>는 일베에서 유통되는 여성혐오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여성혐오적 인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대신 ‘양성평등’이라는 순화된 목표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남성 청년의 몫을 빼앗는 자로 여성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 올바른 여성상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며 교정 전략 및 대안(남성적 공간)에 대한 체험과 여성 징병제의 실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웹툰의 여성혐오가 어떤 맥락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수위로 조정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sup>28)</sup>

사실 청년세대의 서사적 배경으로 가장 젠더화된 군대라는 공간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웹툰의 의도와 전략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군대를 배경으로 하거나 여성 징병제에 대한 상상을 펼쳐내는 웹툰이라고 해서 반드시 <뷰티풀 군바리>와 같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병가>와 <낙오여군복귀기>와 같이 의경과 여성 군인을 다루는 웹툰이라고 해도, 소재를

28) 안타-페미니즘 단체들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남성연대’가 단체명을 ‘양성평등연대’로 변경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베 바깥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혐오는 역차별의 시정을 통해 ‘양성평등’을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순화되어 표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엄진,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게시물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5, 84-94쪽.

다루는 방식은 〈뷰티풀 군바리〉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노병가〉는 의경 서사가 처음으로 전개되고 있는 웹툰이며, 2000년대 중반의 의경 부대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뷰티풀 군바리〉와 가장 유사한 웹툰이다.<sup>29)</sup> 〈노병가〉의 작중에서 벌어지는 부대 내 구타와 욕설, 얼차려를 비롯한 다양한 가혹행위는 〈뷰티풀 군바리〉에서도 유사하게 재현되는 양상을 보인다.<sup>30)</sup> 또한 〈낙오여군복귀기〉는 여군 징병제가 일상화된 가상의 배경을 다룬다는 점에서 〈뷰티풀 군바리〉와 유사하지만, 여성군인과 군대를 재현하는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이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뷰티풀 군바리〉가 여성 징병제에 대한 상상을 도입하는 방식 및 젠더를 재현하는 양상을 보다 상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 〈뷰티풀 군바리〉 이전의 군대 웹툰: 〈노병가〉와 〈낙오여군복귀기〉

〈우정의 무대〉와 〈진짜 사나이〉, 〈태양의 후예〉와 같은 TV드라마나 예능에서 그 시대의 당당한 남성성을 공공연히 전시해 왔다면, 웹툰에서는 상대적으로 군대의 ‘일상’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29) 〈노병가〉는 주인공 윤희철이 2004년 의경으로 입대하면서 서사가 시작된다. 〈뷰티풀 군바리〉의 경우 2015년 연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의 의경부대를 배경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뷰티풀 군바리〉의 작가는 자신이 군생활을 한 시점이 2006년경이며, 또 200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뷰티풀 군바리〉에서 묘사하고 있는 의경 내의 각종 악습과 부조리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0) 이러한 유사성은 처음부터 작가와 상당수의 독자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뷰티풀 군바리〉의 작가는 26회에서 〈노병가〉의 작가 기안84의 허락을 구하고 〈노병가〉의 등장인물들을 작중 스치는 남성 의경부대의 대원들로 등장시키기도 했다.

것으로 보인다. 〈신과 함께〉로 유명세를 얻은 주호민의 데뷔작 〈짬〉, 의경 부대에서의 폭력과 구타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유명한 기안84의 데뷔작 〈노병가〉, 겐부의 〈꾸나꼬무이야기〉,<sup>31)</sup> 여성 징병제가 도입된 2021년 이후를 배경으로 한 윤필의 〈낙오여군복귀기〉와 김보통의 〈DP 개의 날〉, 좀비물과 군대라는 공간을 결합한 선우훈의 〈데미지 오버 타임〉에 이르기까지, 군대의 폭력적 일상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나 ‘여성 징병제’에 대한 상상은 〈뷰티풀 군바리〉의 등장 이전부터 웹툰에서는 계속해서 시도되어 왔다.

물론 언급한 군대 웹툰들이 모두 앞서 논의한 청년세대 서사나 대학 웹툰(혹은 ‘평범 내러티브’)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노병가〉는 상대적으로 청년세대 서사의 논리와 상당히 유사한 점을 보이는 작품이다. 비록 군대라는 격리된 공간/집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병가〉는 기성 미디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청년세대의 일상을 ‘팝진’하게 보여주며, 특별한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대신 청년들이 조직과 제도에 적응하는 안착하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웹툰은 훈련을 통한 성장이나 군 부대의 억압에 대한 저항보다는, 의경의 관습과 부대 내 신체/언어 폭력을 충실히 재현하는 데 주력한다.

주인공 윤희철이 의경 부대 내에서 적응해나가는 과정을 긴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동안, 여성은 극 중에서 단지 부차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물론 이는 의경 부대라는 배경이 선택된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성인물들이 가끔씩 나오는 장면들에서도 그들은 그저

31) 이 작품은 스포츠투데이의 지면에도 연재된 만화이기에 웹툰으로 분류하기 애매하다. 그러나 〈짬〉 및 〈노병가〉와 비슷한 시기에 연재되었고, 독자들로부터 〈노병가〉나 〈짬〉과 함께 논의·평가되었기에 이 글에서도 다른 웹툰들과 함께 언급한다.

휴가 나온 남자친구와 만나 잠깐 함께 놀거나 아니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으로 묘사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못생긴’ 시위대 여자가 의경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한 묘사와 같이, 편협한 젠더적 시선을 통한 재현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sup>32)</sup>

하지만 이러한 시각의 편협함에도 불구하고, 기인84는 여성의 대상화를 매개로 한 남성들 간의 유대가 형성되는 과정은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다. 특히 성적인 화제를 통해 의경들이 남성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잘 묘사되어 있는 편인데, 윤희철은 선임인 김효중과 친해지기 위해 함께 보초를 서면서 첫 경험이나 여자친구에 관한 얘기, 나이트 클럽에 가서 놀 계획에 대한 얘기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선임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친근감의 형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특박 때 나이트클럽이나 함께 가자는 선임의 제안이다. 작가는 이러한 장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그저 이들이 어떤 인물이며 어떻게 유대를 쌓는가의 모습만을 건조하게 보여준다. 이는 군인의 성별을 전환하여 제시하고 있는 <뷰티풀 군바리>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통찰이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다.<sup>33)</sup>

32) 여기서 시위대 여성은 ‘못생긴’ 주제에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민감한 페미니스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처럼 편협한 시각에 기반한 여성에 알팍한 묘사는 기인84의 작품들에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다. 이에 관해 위근우는 <복학왕>에 대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다. “(기인84는) 종종 자기 포레 집단이 공유하는 알팍한 인간상을 무비판적으로 그려 작품의 리얼리티를 깎아 먹는다. 최근 에피소드인 ‘옷을 좋아하는 소녀’의 경우 쇼핑에 중독된 여대생이라는 스테레오타입으로 대충 한 회를 때우며 캐릭터를 무책임하게 소비한다. 브랜드 웹툰인 [체육왕에서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편견 역시 윤리적이지도 리얼하지도 않다.” 위근우, 『복학왕과 기인84, 이 시대 청춘의 리얼리티』, 웹진 『IZE』, 2016.3.28. <http://ize.co.kr/articleView.html?no=2016032711517225832> (검색일: 2017.7.10)

33) 남성 동성사회성은 남성들간 유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다. 이때 남성 간의 차이는 남성들 내부에서 유대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통합되는 반면, 남성성을 위협하는 방식을 젠더 차이는 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병가>의 분위기와 서사적 흐름은 대부분 <뷰티풀 군바리>에 충실히 반영된 반면, 윤필의 <낙오여군복귀기>에 나타나는 여성군인의 모습은 <뷰티풀 군바리>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인다. <낙오여군복귀기>는 행군 도중 우연히 대소에서 이탈하고 낙오한 여군 반혜경 일병이 12일에 걸쳐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혼자서 계속해서 행군을 이어나가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웹툰의 배경인 2030년의 군대에서는 행군 도중 낙오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묘사되며, 제각각 어떻게든 제 시간까지 부대로 복귀하는 게 중요하기에 다른 부대원들도 낙오한 병사를 굳이 찾아서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주인공이 몸에 부착하고 있는 훈련용 시계로 인해 현재 주인공의 위치는 상부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혼자서 부대까지 제 시간에 복귀하면 별다른 벌점 없이 행군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sup>34)</sup> 그리하여 낙오한 이후 열흘 동안, 주인공은 자대에 복귀하기 위해 계속해서 길을 찾아 걸으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마지막화가 끝난 후 올라 온 '작가 후기'에서 윤필은 주인공을 여군으

---

성을 적극적으로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시우, 『다른 목소리로: 남성 피해자론 및 역차별 주장 분석하기』, 윤보라 외,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 2015, 134-136쪽.) 그리고 위에서 기술한 <노병가>의 장면들 역시 이러한 남성 동성사회성의 경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잘 드러낸다.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동성사회적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후임 윤희철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대신 여성을 대상화하는 대화에 동참하며 선임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이러한 위계질서에 반항한 이준희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근신 처분을 받고 모든 이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

34) 작품에서는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진급에 따라 임금의 상승 폭도 크기에 의무복무 기간 동안의 진급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성과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는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행군을 비롯한 각종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 때 진급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후임에 비해 제대가 늦어지거나 병장 만기제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로 설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성보다 여성의 시각과 감성이 타인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세심하게 바라보는 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실제 서사 내에서 여성군인 부대의 모습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하는 남성군인 부대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예컨대 1화 행군 중 반혜경은 매우 부드러운 태도로 후임을 대하고, 후임에게 주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사탕을 반으로 쪼개서 건네주고 있다. 이 장면에서 선후임 사이의 위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이러한 위계는 이들이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게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5화에서는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을 보며 반혜경이 예전 행군 때를 떠올리는데, 여기서 반혜경은 행군 중 길에서 죽은 동물을 보면 늘 울음을 참지 못했던 것으로 묘사된다. 이런 모습은 현재의 기준에서 살펴볼 때 군인으로서 매우 부적합한 모습일지도 모르나, 반혜경의 주변 병사들은 그녀를 비난하거나 혼내는 대신 다정하게 위로를 건네고 건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웹툰의 내용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지적한 것은 웹툰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현실성에 대한 지적은 상당부분 행군해서 낙오한 후 홀로 복귀한다는 웹툰의 기본적인 설정 자체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외에 반혜경이 모습이 전반적으로 군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도 상당히 많았다. 예컨대 1화에서 반혜경이 복귀하자, 낙오에 대한 웹툰의 설명과는 상반되는 “복귀후 영창 ㄱㄱ”라는 댓글이 122명의 추천을 받아 베댓으로 선정되었으며, 행군 중인데 소총은 왜 없는 것이냐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댓글들은 회마다 반복되었다.<sup>35)</sup> 또한 웹툰의 내용과 상관없이, 징병제가 실시되는 국가 중 대

35)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6화에서 개량형 방독면 주머니에 넣을 수

한민국의 여성들만 국방세도 내지 않으면서 징병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댓글이 1화의 베댓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낙오여군복귀기〉가 군대를 다루는 웹툰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를 충분히 채우지 못했으며, 공감과 고찰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시각’도 많은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여성군인에 대한 작가의 상상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군대에 관한 웹툰의 전형성을 완전히 뒤집기 위한 것이었기에, 낯익은 서사를 떠올리고 찾아온 독자들은 이를 외면해버렸던 것이다. 물론 이후 회차에서는 작가를 옹호하는 댓글이 계속해서 베댓으로 선정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는 웹툰의 독자층 자체가 대폭 줄면서 웹툰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독자만 계속해서 웹툰을 구독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정확한 회차별 조회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2017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예고편에 달린 댓글이 473개, 1화에 달린 댓글이 400개인 반면 마지막회인 12화에 달린 댓글은 167개, 작가 후기에 달린 댓글은 137개에 불과하다.<sup>36)</sup>

이처럼 〈노병가〉가 군대의 일상에 관한 서사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형을 보여주며 나름의 인기를 끌었던 반면, 〈낙오여군복귀기〉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상상을 통해 통념과는 다른 군대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시도했지만 대중적인 호응을 얻는 것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작품에 대한 상반된 반응은 추후 〈뷰티풀 군바리〉에서 ‘여성군인’에 대한 상상이 형상화되는 방식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뷰티풀 군바리〉는 〈노병가〉의 흥행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낙오여군복귀기〉의 잔잔한 분위기와는 상반되는 방식으로 여성 군인을 그려내는

있는 인식 소충을 휴대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36) 이후 언급되는 댓글 수나 댓글에 달린 추천 수는 모두 2017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음을 밝힌다.

양상을 보인다.

#### 4. 〈뷰티풀 군바리〉의 서사와 여성 묘사

〈뷰티풀 군바리〉는 〈노병가〉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음을 숨기지 않는다. 두 작품은 전의경 부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이라는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까지 동일하다. 이는 2000년대 중반의 의경부대야말로 〈노병가〉가 그랬던 것 같이 극한의 폭력상황을 팝진하게 보여주기엔 가장 적합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가상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전의경 부대를 팝진하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웹툰에서 정수아는 논산 육군훈련소를 거친 다음, 자대로 배치 받아 말도 안 되는 폭력과 마주친다. 〈낙오여군복귀기〉와는 달리, 폭력과 가혹행위에 대한 묘사들에서 여성이라는 성별은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완전히 남성화된 방식으로 폭력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며, 이러한 폭력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규율과 폭력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은 ‘여자놀이’를 그만두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는 철저히 군대를 경험하거나 군대에 관심이 많은 남성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남성들은 군대에 관한 익숙한 서사를 보며 폭력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작가는 신병들의 고난과 2006년 당시의 의경 부대의 구조, 실제 서울의 거리에 대한 충실한 재현을 통해 팝진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노병가〉와 마찬가지로, 의경 내의 계급 및 역할을 의미하는 ‘발대기’나 ‘챙’과 같은 은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이에 따른 촘촘한 서열구조가 제시되고 있다.

10년 전의 군대에 대해 충실히 재현할수록, 군대라는 공간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성의 모습에 대한 이질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처음 정수아가 입대했을 때만 해도 그녀를 비롯한 훈련병들은 군대라는 공간을 지배하는 논리에 전혀 무지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렇기에 빨리 회복하라는 조교의 명령에도 조교가 저렇게 신경질을 내는 걸 보니 생리라도 하는 걸까 오해하기까지 한다.<sup>37)</sup> 이후 이어지는 훈련 중에도 여성 훈련병들은 생리 때문에 힘들다며 주저앉아 우는 등 ‘여성성’을 버리지 못하고 ‘칭얼’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계속되는 훈련을 거치면서 정수아를 비롯한 훈련병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닫게 된다.<sup>38)</sup> 훈련소와 경찰학교, 자대를 거쳐 정수아는 서서히 ‘개념을 갖춘’ 의경(군인)으로 성장한다.

이 과정에서 댓글 창은 독자들에게 군대 추억의 공유와 더불어 여성부를 욕하고 ‘맨스플레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예컨대 5화에서는 웹툰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네. 그래서 여성부는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댓글이 45876명의 추천을 받아 베댓으로 선정되었으며, 웹툰에서 실시된 화생방 훈련의 당위성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댓글이 역시 7102명의 추천을 받아 베댓이 되었다. 또한 8화나 9화에서는 ‘여성이 입대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남자들이 나라와 여자를 지키느라 수고하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은 댓글들이 각각 대략 6~7만회

37) 특히 이런 반응은 입대 직후부터 긴장감이 감도는 일반적인 남성들의 입대 상황과는 상반되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작품의 설정 상 여성 징병제가 도입된 지 이미 십년도 넘게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성이기에 더욱 더 군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38) 5화에서 화생방 훈련을 겪은 뒤 수아가 쓰는 편지에는 이러한 심경의 변화가 잘 나타난다. “나 하나 그리고 우리가 군인이 됨으로써 그것이 군대가 되고, 그 군대가 가족을, 친구를... 그런 고통에서 구해주고 위협에서 보호해준다면 말아야... 내가 군인이 된 거... 정말 의미 있다고, 해볼만 하다고 화생방 훈련에서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아.”

정도의 추천을 받고 베넷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댓글들은 웹툰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서와 방향성 전반에 열렬한 공감을 표하면서, 남성들의 군대 경험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열망을 한껏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 정수아의 고민과 '성장'은 훈련소를 거치고 자대에 배치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여기서의 내적 갈등은 주로 내무반에서 이뤄지는 부당한 폭력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놓고 이루어진다. 정수아는 계속해서 자신이 겪은 폭력에 대해 고발할지를 고민하지만, 결국 부대의 보안과 자신의 안정적인 군생활을 위해 이러한 고발을 포기하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성장'한다. 65화에서는 자신의 첫 후임이 선임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먼저 화내는 모습을 보이며 상황을 능숙하게 무마하고 분란의 여지를 막는 모습을 보이기에 이른다.

물론 아직까지도 주인공이 이경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연재분에서, 정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성장을 마친 후의 모습은 일정 부분 1화에 예고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1화에서 군대에 다녀온 여성들은 '특별'하다고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은 "남북 관련 뉴스도 군대에 다녀온 여자들보다 냉정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웬만한 군대 용어, 군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병역비리 연예인을 옹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웹툰의 여성들은 군대를 다녀오면서 분단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개념'을 갖춘 시민으로 변한다.

성장이 의미하는 바는 자대에 배치 받은 수아를 면회 온 가족들의 묘사에서도 드러난다. 정수아를 면회하기 위해 그녀의 오빠와 여동생이 경찰서로 찾아온 날, 아직 군대라는 공간의 생리를 모르는 여동생은 사

소한 일로 정수아의 선임 라시현과 시비가 붙어서 수아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생겨날지도 모르는 갈등을 차단하고 라시현을 달래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은 수아의 오빠이다. 하지만 오빠가 겨우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도, 여동생은 왜 자기가 잘못된 것처럼 그러냐며 울음을 터트려버린다. 이 과정에서 군대라는 공간을 경험하지 못한 여동생의 미성숙함과 오빠의 성숙한 대응, 그 사이에 끼인 정수아의 모습이 극적으로 대비되어 나타난다. 마치 미성숙했던 여성들이, 군대를 경험하면서 사회의 생리를 체득하여 상황을 책임지고 수습하는 성숙한 남성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sup>39)</sup>

이처럼 군대라는 공간에서 이들의 여성성은 완전히 부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혹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성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장면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이성애적 연애 각본이 작동하는 순간이다. 물론 순찰 중에 후임을 시켜 잘생긴 남자들의 번호를 따게 하는 육근육의 모습이나, 면회를 온 정수아의 오빠에게 반한 다음 뒤늦게 정수아를 아껴주는 류다희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군대 서사에서 나타난 남자 군인들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이성애적 연애 각본이 작동하면서, 이들은 자신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매우 '남성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후임을 관리했던 류다희는 갑자기 냉철함을 잃고 몹시 수줍어하며 '여성적'인 특징들을 드러낸다.

또한 서사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여성 군인들이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장면들도 함께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웹툰은 계속해서 여성 군인들의 몸매를 눈요깃거리로 부각시키는데, 이러한 부분은 서사 진행과 상관없

39) 그리고 독자들 역시 댓글을 통해 여동생의 행동을 '발암'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수아 오빠는 정말 멋지다'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인다.

는, 남성 독자들을 위한 서비스 컷으로 제공된다. 앞서 언급한 31화의 폭력장면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위근우에 따르면 〈뷰티풀 군바리〉에서는 불필요할 정도로 자주 여성 군인들의 환복 장면이 등장하며, 특히 주인공 수아의 큰 가슴을 비롯한 외모는 서사 내내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된다. 예컨대 6화에서 훈련소의 “종교행사 장기자랑에 나간 수아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마치 군부대 위문 공연처럼 연출”되었으며, 다양한 앵글에서 정수아의 얼굴과 몸매를 훑고 이를 교차한다.<sup>40)</sup>

물론 〈뷰티풀 군바리〉 역시 〈노병가〉와 마찬가지로 내무반에서 이뤄지는 ‘내리 갈굼’과 각종 가혹행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웹툰의 독자 대다수도 군대에서의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성군인들을 전면에 내세운 서사는 독자들의 분노를 군대의 부당한 구조보다는 이러한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의 무임승차자 여성들로 향하게 하며,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극적인 묘사는 독자들의 시선을 폭력보다는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몸에 머무르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남성성을 강조하며 여성성을 비하하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성애적 연애 각본과 외모를 통해 여성을 규정짓는 태도가 합축하는 여성혐오는 79~83화의 여대 시위대에 대한 묘사에서 매우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대 시위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은 ‘배장여대 중전 차’로 불리는 김양희로, 웹툰은 그녀의 긴장한 신체와 못생긴 외모, 폭력적인 태도를 특히 부각시킨다. 나아가 시위 중반 김양희가 열성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사실 좋아하는 남자 선배 때문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이는 독자에게 그녀 역시 ‘결국’ 여성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못생기고 똥똥한데다 폭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여성성을 감

40) 위근우, 『[뷰티풀 군바리, 이토록 어글리한 만화], 웹진 『IZE』, 2015.10.19. <http://ize.co.kr/articleView.html?no=2015101811457262381> (검색일: 2017.7.10)

추지 못한 여성은 서사에서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웹툰의 서사는 어떤 여성도 결국은 ‘여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서사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외모에 따라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5. 나가며

여전히 성차별적 인식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여성혐오에 기반한 서사가 한 편 더 출현했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티풀 군바리〉의 등장은 단지 또 다른 혐오 서사의 출현으로만 보기 어려운 지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웹툰에서는 일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략적 여성혐오’가 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혐오가 독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탕으로 수용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웹툰은 바람직한 여성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개념이 없는’ 여성들을 교정하기 위한 전략을 숨기지 않는다. 역차별의 시정 혹은 양성평등이라는 구호를 통해 여성에 대한 혐오는 우회적으로 표출된다. 일베의 여성혐오가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이었듯이, 〈뷰티풀 군바리〉 역시 청년세대에게 익숙한 문법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공론장에서는 차마 얘기되지 못했던 것을 풀어내기 시작한다.<sup>41)</sup>

그렇기에 〈뷰티풀 군바리〉는 웹툰 속 청년세대 서사의 논리와 더불어, 의경 부대를 배경으로 했던 〈노병가〉의 서사적 구조를 그대로 답습

41) 그러므로 설령 〈뷰티풀 군바리〉와 일베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작품의 정서가 일베의 정서와 닮아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다. 다른 미디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청년세대의 공간을 배경으로 청년들의 '일상'을 픽진하게 묘사하며, 조직과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 자체를 서사화하는 것이다. 물론 웹툰의 서사에서 '무임승차자'가 누군인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는 성별을 전환시킨 설정 자체가 여성이 무임승차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병가〉와 같은 서사가 나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미덕은, 〈뷰티풀 군바리〉에서는 단지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당의정으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성은 청년세대 내부에서 다시금 타자화되며, 여성혐오적 정서는 군대의 부조리에 대한 엄중한 비판이라는 안전한 외피를 두르고 확산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웹툰 〈노병가〉, 〈낙오여군복귀기〉, 〈뷰티풀 군바리〉

### 2. 논문과 단행본

- 구자준, 『웹툰의 대학사회 재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수환, 『웹툰에 나타난 세대의 감성구조: 잉여에서 병맛까지』, 『탈경계인문학』 제4권 제2호, 2011, 101-123쪽.
- 김학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손희정, 『젠더戰과 퓨리오-숙들의 탄생: 2016년, 파퓰러 페미니즘에 대한 소고』, 『여/성이론』 제34호, 2016, 35-59쪽.
- 에바 일루즈, 『감정 자본주의』, 김정아 옮김, 돌베개, 2010.
- 윤보라, 『일베와 여성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제57호, 2013, 33-56쪽.
- \_\_\_\_\_, 『온라인 페미니즘』, 『여/성이론』 제30호, 2014, 166-180쪽.
- 윤보라 외,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 2015.
- 이승연, 『웹툰이 재현하는 청년세대와 청년문제에 관한 연구: 웹툰 〈당신과 당신의 도서관〉, 〈목욕의 신〉, 〈무한동력〉, 〈미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조서연, 『‘진짜 사나이’와 ‘여자 군인’,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화된 군사주의-MBC 예능 〈진짜 사나이-여군 특집〉에 대하여』, 『문화/과학』 제83호, 2015, 122-141쪽.
- 최서윤 외, 『흠흠청춘』, 세창미디어, 2016.

## Abstract

### Emergence and Meanings of a Strategic Misogynistic Narrative - focus on the *Webtoon Series A Beautiful Soldier*

Koo, Ja-Jun(Yonsei University)

A webtoon series titled *A Beautiful Soldier*, whose official serial publication began on Naver on February 15, 2015, has caused a lot of controversy for its "Misogyny". It is interesting that the webtoon series has enjoyed tremendous popularity and broad support from its readers despite increase resistance and criticism against it. That is, its popularity is based on not only online community 'Ilbe', which have continued to produce hate discourses, but also extensive support from male webtoon readers of the young generation that were sensitive to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men. This study thus set out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s and meanings of an "aggressive" misogynistic narrative to address men's complaints about reverse discrimination such as *A Beautiful Soldier* by reviewing the narratives of the young generation on the Web and in webtoons.

The publication of *The Generation of 880,000 Won* brought huge changes to the self-perception of the young generation as well as the society's view of the young generation. The medium of webtoons has depicted the new self-narratives of the generation most actively. One genre of webtoons depicts the daily life of the young generation as campus dramas, which have been neglected by the established media, and reveals how the young generation in pain forms a sense of solidarity and expresses their anger about "free riders."

Then the members of Ilbe have presented Jeolla Provinces, the Left Wing, and women as imaginative "free riders" and turned the narrative of the young generation toward the Far Right. Misogyny is, in particular, accompanied by active "strategies" to "correct" the current gender structure and can thus be called the core of "their problematic practice." *A Beautiful Soldier*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misogyny based on those strategies. It points out women as unfair beneficiaries who exempt from military service, clearly presents the desirable image of women, and proposes

corrective strategies and alternatives. While basing his webtoon series on vivid depiction and anger at military life found in such old narratives as *Old Soldiers' Songs* by Gian 84, the cartoonist presents gender switch and maximizes anger and imaginative punishment toward women.

Similar to the misogyny expressed by Ilbe, which is familiar yet new, the webtoon series have succeeded in developing a narrative of punishing and correcting women who are "free riders", which have not been discussed in the public sphere, on the Naver platform by using language that is familiar to the young generation. There is no specific mention about who are "free riders" in the narrative of the webtoon series, of course, but it constantly arouses the fact that women are free riders according to its setting of gender switch itself.

(Key Words: female conscription, webtoon, narrative of conscripted policemen, ilbe, strategic misogyny)

논문투고일 : 2017년 7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8월 4일

수정완료일 : 2017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7년 8월 14일